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에 나타난 남녀관계

—「기비쓰노가마」(吉備津の釜)와 「자세이노인」(蛇性の淫)을 중심으로—

박희영*

차례

- I. 서론
- II. 본론
 - 1. 「기비쓰노가마」(吉備津の釜)의 남녀관계
 - 2. 「자세이노인」(蛇性の淫)의 남녀관계
 - 3. 남녀관계의 확대와 변화
- III. 결론

I. 서론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¹⁾는 가미가타(上方)문학의 지적인 원숙기인 에도시대 중기(1776년)에 출판된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의 작품으로, 전기 요미혼(讀本)의 대표작품이다. 9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작품은 중국의 괴이한 이야기를 일본화하여 일본사회를 무대로 하여 창작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고래의 괴담문학과 중국에서 유입된 백화(白話)소설의 결합 위에서 중국의 괴담이나 기담을 단순히 일본을 배경으로 옮겨놓기만 한 이전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작자 자신의 주제의식을 현실세계를 벗어난 이야기의 틀 속에 새롭게 창작한 작품이다.

『우게쓰모노가타리』의 9단편은 충성, 신의, 정절, 영험, 원한, 복수, 집착, 깨달음 등을 그려내고 있다. 인간이 처한 여러 상황과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자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안주하거나 극복해 나가려는 인간의 제 양상들을 전기성(伝奇性)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아키나리는 괴이, 변화라고 하는 비현실의 공간을 설정하고 현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인간에게 공통된 단면들의 실태를 응시하고 그 본질을 묘사하려 하고 있다. 현실의 인간들에게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을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결국 『우게쓰모노가타리』의 각 단편에 등장하는 전기적인 묘사는 허구의 한 수단일 뿐, 주제는 어디까지나 인간묘사였던 것이다.²⁾

본 작품이 9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9단편은 각기 다른 소재와 주제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거나 9단편의 구성상의 공통된 특징을 하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³⁾ 그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한일 양국에서 이들 단편의 구조적 관련성에 관한 인정할만한 총체적 연구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게쓰모노가타리』에서 나타나는 각 단편들의 부분적인 연관성을 우선 찾아보려고 하였다. 즉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단편들의 유기적인 관련성과 작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두 번째로 비슷한 구성형태와 등장인물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작품을 우선 선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9단편들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2작품 「기비쓰노가마」(吉備津の釜)와 「자세이노인」(蛇性の姪)을 선택하였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을 중심으로 두 작품의 남녀조형을 각각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두 작품의 남녀조형의 확대와 변화양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아키나리가 나타내려고 한 인간조형의 의미와 특징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II. 본 론

1. 「기비쓰노가마」(吉備津の釜)의 남녀관계

본 작품은 기비쓰신사의 가마점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독특한 배경 속에서 사건의 전개를 이루어 가고 있다. 『우게쓰모노가타리』 속의 작품 중 가장 처참한 괴기소설이며,

『전등신화』 중 「모란등기」(牡丹燈記)에서 그 모티브를 취하여 그 구성을 이루었고, 선악의 인과응보사상에 충실한 작품으로 평가된다.⁴⁾

여기서 두 남녀주인공인 쇼타로(正太郎)와 이소라(磯良)의 인물조형과 사건의 전개와 더불어 변화하는 그들의 모습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쇼타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다.

외동아들인 쇼타로는 농업을 싫어한 나머지 주색에 빠져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⁵⁾

그러나 타고난 바람기 있는 성질이라는 것은 어찌할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토모쓰라는 곳의 소테라는 유녀와 깊은 사이가 되고 결국 그녀를 유곽에서 빼내고 이웃 마을에 별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며칠이고 틀어박혀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다.⁶⁾

위의 두 인용문에서 보듯이 쇼타로는 농업을 매우 싫어하고 주색에 빠져서 지내는 호색한이다. 나중에 부모가 쇼타로를 바로 잡고자 좋은 혼처의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게 하자 이러한 생활을 잠시나마 정리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그의 기질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테라는 유녀를 만나 깊게 빠지고 마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도 자신이 한 행동을 뉘우칠 줄을 모르고 부인을 기만하고, 잘못을 빌지도 않고 도망치려고만 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한편 이소라는

기비쓰신사의 신관인 가사다(香央)라는 사람의 딸로 천성적으로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극한 효녀이며 와카나 거문고에 재주가 있다.⁷⁾

좋은 집안의 딸로서 아름다운 용모와 마음씨를 지니고 있는 여성으로 처음에는 묘사되고 있다. 바람둥이 남편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마음속에 한스럽게 여기면서도 남편의 거짓 말을 믿으려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남편의 정부의 형편을 돌보아 주기도 하는 마음씨 고운 여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속임을 당하여서 이제는 오로지 원망하고 탄식하며 결국에 중병이 들고 말

았다.⁸⁾

「오랜만에 뵙습니다. 호되게 당한 자의 복수가 어떠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지요.」⁹⁾

위의 두 인용문을 보게 되면 이소라의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원한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하여 병을 앓다가 죽게 되고,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무서운 원령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남편에게 참혹한 복수를 벌이게 된다. 이렇게 본 작품의 남녀중심인물의 관계는 사건전개와 더불어서 불행으로 치닫게 되고, 이소라는 극명한 인물조형의 변화를 거친다.

그러면 여기서 두 남녀관계가 이러한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그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작품의 성립배경은 호색한인 쇼타로와 아름다운 용모와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이소라의 불행한 운명적 만남에서 찾을 수가 있다. 불길하게 나타난 가마점을 무시하고 결혼을 하게 된 이들은 피할 수 없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한다. 작품 속에서 상세히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불행을 암시하는 가마점을 뒤로한 채 이들이 맺어지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경위를 살펴 볼 수가 있다. 먼저 이들은 양쪽 집안의 적극적인 주선 등, 주변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집안끼리 맺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당시 사회를 감안 해 볼 때 명문집안인 이소라의 집안을 마다할 이유가 쇼타로의 집안에는 없었고, 아름답고 성품 좋은 규수를 맞이하고자 하는 욕심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가마점이 불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사에서 일을 돕는 하후리(祝部)들의 부정한 몸가짐으로 돌리며 결혼을 서두른 것은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예물을 교환하여 부부가 되기를 약속한 이상은 설사 상대가 원수에 해당하는 집안이거나 또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중략) 그러나 만약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는 어떠한 일을 저지를 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가 되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¹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둘의 불행한 만남은 시작되었고 예정대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해진 신의 계시를 따르지 않은 두 남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가마점으로 미리 예상되어진 그들의 운명을 그대로 따랐더라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불행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키나리는 세상사람들에게 신을 따르지 않는 자의 비극적 최후를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교훈으로 전달하고자, 괴담적 분위기를 자아내어 당시의 독자들에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긴장감을 통하여 『우게쓰모노가타리』내의 다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어떠한 괴담보다도 참혹하고 잔인하게 괴기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¹¹⁾

전술하였듯이 이소라는 혈통이 좋은 신관의 딸로서 현명하고 마음씨 고운 여성이었다. 이소라는 남편 쇼타로가 타고난 바람기로 바람을 피움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지만, 쇼타로는 이를 무시하고 소태와 함께 도망가 버린다. 이소라는 그러한 남편의 행동이 심해 질수록 가슴속으로만 원망을 삭인 채 정성을 다했던 것이다. 이소라에게 설정된 상황은 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짓밟히는 가혹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상황은 가장 극심한 형태로 변모하고, 죽어서 원령으로 변한 이소라는 결국 쇼타로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된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등불을 쳐들고 여기저기 둘러보니 활짝 열린 문 옆의 벽에 비릿한 피가 낭자했다. 하지만 시체도 없고 뼈도 보이지 않았다. 달빛에 의지하여 보니 처마밑에 무언가가 있었다. 등불을 들고 비쳐보니 남자의 상투만 걸려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음산함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¹²⁾

『기비쓰노가마』의 사건전개는 마치 복수담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초점은 남녀의 애욕의 모습과 그 결과를 그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아내의 남편에 대한 집착이 원령으로까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 『기비쓰노가마』는 남자에게 배반당한 여자가 원령으로 변하여 복수를 하는데 그 주제가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인과응보적인 주제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소라의 본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남자에 대한 애욕의 집착이 원령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 원령을 통해서 이소라의 잠재해 있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봉건질서하의 유순하고도 정숙한 아내 이소라를 통해서,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고뇌하고, 마침내 원령으로 변모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등장한 가마점이라는 독특한 소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사건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혼식 때 신사에서 가마점을 보는 것을 이용하였는데, 본 작품에서는 불길한 점괘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두 인물의 결혼이 순탄치

못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복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어진 운명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한 이들은 결국 정해진 그들의 운명에 따라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당사에 소원을 비는 사람은 여러 가지 공양물을 신전에 바치고 신전의 큰술에 물을 끓여 일의 길흉을 점친다. 무녀의 주문이 끝나고 물이 끓을 때, 길조이면 술에서 나는 소리가 소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한다. 흉조이면 술에서는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기비쓰의 가마점이라 한다. 그런데 가사다가 자기 딸의 혼담을 점쳐보자 신이 받아 들이지 않으셨던지, 술에서는 마치 가을 벌레가 풀숲에서 울고있는 듯한 작은 소리밖에 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의심을 품고 이 흉조를 처에게 말하였다.¹³⁾

위에서 보듯이 본 작품은 가마점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여 신의 계시를 점칠 수 있는 배경을 설정해 놓고 있다. 술에서 나는 작은 소리는 흉조임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고 무릇 기비쓰신사의 신관인 이소라의 아버지 가사다는 누구보다도 이것이 예고하는 앞날의 전조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은 인간으로서의 욕심과 자만 속에서 망각되어 버리게 되었다. 즉 내심 자신이 바랬던 결혼이기도 하였기에 그럴듯한 구실과 변명을 가져다가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부터 쇼타로와 이소라의 불행한 운명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작품에서 이러한 정해진 파국을 극복해 나가려는 작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가 보이는데, 승려를 등장시키어 부적으로써 부인 이소라의 원령을 회피하게 하려는 쇼타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부속적 요소에 지나지 않으며, 정해진 파국을 맞이하는데 이러한 요소 역시 독자들에게 작품의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반전을 제공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부적이라는 파국에서의 탈출을 암시하는 요소도 쇼타로에게 반드시 희망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다음을 통하여서 살펴 볼 수 있다.

「재액은 이미 당신의 몸에 깊이 들어와 있고 이것은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 여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이 원령인데 원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숨에도 조만간 닥칩니다. 이 원령이 세상을 떠난 것은 7일전이므로 오늘부터 42일간 문을 닫고 원령을 피해야 합니다. 나의 경계를 지키면 살 수 있을 것이고 잠깐이라도 이 충고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¹⁴⁾

이러한 효과를 작품 속에서 한껏 고조시킨 후, 마지막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쇼타로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극도의 공포감과 경계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주고 있는 것이다.

비극적인 결말의 배경에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쇼타로의 호색적인 기질과 그로 인해 변모하게 되는 이소라의 성격적 전환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한 남자에 대한 한 여인의 믿음이 배신으로 인하여 깊은 분노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작품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대대로 내려오던 신의 계시를 거역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보려고 하였던 인간들의 나약한 모습이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신의 계시를 어긴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그러한 신의 범주 속에 살아왔고 살아가야 할 인간들의 제 모습들을 신도(神道)적 요소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사회 속에는 수많은 신앙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 속에서 인간들은 철저히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적, 윤리적, 신앙적인 통제 속에서 자유롭고자 하였던 인간들의 모습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가져오는 결과를 간접적으로나마 작품 속에서 살펴보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경고를 작품 속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자세이노인」(蛇性の淫)의 남녀관계

「자세이노인」은 중국의 백화소설집인 『케이세이쓰겐』(警世通言) 권28 「하쿠쥬시에이 친라이호토」(白娘子永鎮雷峯塔)를 주 텍스트로 하는 번안소설로서, 도요오(豊雄)와 마나고(眞女兒)라는 두 남녀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작품이다.¹⁵⁾

여기서 본 작품의 두 중심인물인 도요오와 마나고의 조형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도요오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셋째는 도요오라고 했다. 타고난 점잖은 성격에 항상 풍류를 즐기며 어업은 물론 현실이라는 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¹⁶⁾

위의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요오는 부유한 어부의 집안 자식으로, 경제력 있는 집안의 상속권 없는 차남으로 설정되어 있는 인물이다. 성격은 자상하고 학문을 즐기는 청년이며 선이 고운 섬세함이 있는 지극히 온순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인물로 설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 탓으로 쉽게 마나고에게 이끌려 곤경에 처하게 된다. 아름다운 여성에게 한없이 약하며 모질지 못한 면모를 작품 곳곳에 보이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나이가 들었으면서도 부모 밑에서 지내는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자니 부모형제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었다. 기쁜 동시에 또한 무서워져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게 돼 버린 것이다.¹⁷⁾

도요오는 장남에게 가독이 상속되는 상황임에도 생업에 열심히 임하지 않는, 실생활과는 화합하지 못하는 인물로도 묘사되고 있다. 이후 마나고와의 만남을 통하여서도 그의 이러한 부정적인 존재로서의 이미지는 쉽게 개선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작품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그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다음과 같이

도요오는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며 「이런 영험하신 스님조차도 굴복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집요하게 저에게 달라붙어서 살아 있는 한 찾아낼 것입니다. 저의 목숨 하나 때문에 남들을 고생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이상은 남들의 힘을 빌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부디 안심하십시오.»¹⁸⁾

인간적인 변모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활태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현실적이고도 결단력 있는 모습을 갖춘 인물로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 도요오가 인간적인 변모를 맞이하게 되는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 근원은 다음의 두 가지의 인용문에서 찾을 수 있다.

도요오는 신구(新宮)의 신관인 아베노 유미마로(安部の弓磨)를 스승으로 공부하려 다니고 있었다.¹⁹⁾

도요오는 생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신사의 신관에게서 학문을 배우는 청년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가 기본적으로 신도(神道)적 심성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게쓰모노가타리』에는 유교, 불교, 신도 등 여러 가지 신앙이 혼재되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신앙들은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지배하여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행동양식과 성격에 영향을 주어 사건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전환에 커다란 동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각 신앙들은 서로 대립적인 차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고, 각각의 독특한 특성을 보이면서도 신불습합(神佛習合)의 형태와 같이 융화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작품의 흐름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마나고라는 마물에게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도요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게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²⁰⁾

결국 이러한 기본적 자질에 의하여 도요오의 이러한 낙담과 현실무관심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변모하게 된다. 즉 마나고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츰 강한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용문으로써

일동은 한편 놀라고 한편 당황하여 이 노인은 존귀하신 신께서 현신하신 분이 틀림없다며 황급히 합장 배례 할 뿐이었다. 노인은 웃으며 자신은 현신한 신 같은 것이 아니라 야마토(大和)신사의 신관인 다기마노 기비토(當麻の酒人)라는 자라고 대답했다.²¹⁾

여기에 등장하는 신관은 마나고가 마물일지 모른다는 불신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도요오에게 깨달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도요오에게 마나고의 정체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남자로서의 잊었던 용기를 되찾게 해주고 격려를 해준다. 이후 도요오는 새로운 여인 도미코(富子)와 결혼을 하려 한다. 이는 유약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결혼에 다시 마나고가 나타나 도미코를 납치해 버린다. 그러자 신관의 도움으로 마나고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한 도요오는 마침내는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남들을 구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²²⁾ 이 부분이 본 작품에서 반전을 가져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인용문은 도요오의 강한 결의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제 이 이상은 남들의 힘을 빌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²³⁾

여인이 기분 나쁠 정도로 요염하게 이양을 떨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도요오는 그를 외면하며 대답했다. (중략) 「이 집의 딸 도미코의 목숨만은 살려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나를 어디로든 데리고 가도록 하거라.»²⁴⁾

도요오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 속에서 난국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보이던 마나고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닥쳐온 고난을 통해 각성하여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고 자신 앞에 닥쳐온 고난을 자력으로 싸워 이기려 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 짐승놈은 자네의 준수함에 끌려서 자네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네만 네 쪽도 그 짐승의 거짓 모습에 현혹되어 남자로서의 정신을 잃고 있는 게야. 남자로서의 진정한 용기를 일으켜 마음을 억누르게나.»²⁵⁾

이와 같이 신도적 성향의 인물들은 현실감각이 부족한 도요오에게 사건전개상의 밑바탕과 반전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본 작품에서는 「기비쓰노가마」에서 보이던 신의 계시를 거부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비극적 인물의 유형과는 달리,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마나고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이는 20세도 안되었을 여자가 얼굴 생김새도 곱고 머리 모양새도 좋은 실로 아름다운 여성이 (중략) 도요오를 보고 얼굴을 살짝 붉히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동하였다.»²⁶⁾

「자네에게 들러 붙어있던 사신은 나이를 먹은 뱀인 게야. 그 본성은 음탕한 것으로 소와 교미하여 기린을 낳고 말과 교미하여 용마를 낳는다고 한다네. 이번에 당신에게 들러 붙은 것도 자네의 준수한 외모에 정욕을 일으켜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네. 그렇게 집념이 강하니까 충분히 조심하지 않으면 목숨까지 빼앗기고 말게야.»²⁷⁾

위의 인용문을 자세히 보면 변화해 가는 마나고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나고는 도요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애정어린 정욕을 가득 담고 있는, 뱀이 화한 이름다운 여성으로 등장한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도요오의 모습과 그의 친절함에 그만 마물로서는 행해서는 안될 선을 넘고 말게 된다. 인간으로서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어서인지, 그녀가 행동하는 모습이 보통의 여인이 한 남자에게 애정을 쏟는 정다운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한 마물의 잘못된 정욕에 의한 끊임 없는 집착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사랑을 잘못된 소유로서 착각한 한 마물을 통해 공포스러운 작품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마나고와 도요오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마나고가 인간이 아닌 마물임이 밝혀지자 도요오는 그 사랑을 그만두려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남들의 허튼말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무리하게 멀리하고자 하신다면 원한을 품고 보복을 해드릴 수밖에 없나이다. 기지(紀路)의 산들이 높다 한들, 당신의 피를 산꼭대기에 서 골짜기 바닥까지 흘려 보이겠나이다. 소중한 생명을 헛되이 하는 일은 하지 마소서.』²⁸⁾

마나고는 도요오의 그러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처치하려는 도요오를 향해 위협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이 쟁취되지 못하는 데에 대해 집념을 버리지 못한다.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잡으려고 사람들과 의논을 하십니까. 이후에도 보복을 하면 당신 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쓴맛을 보이겠습니까.²⁹⁾

마나고는 뱀의 화신으로 초월적인 힘을 가졌지만 도요오의 사랑을 구할 때는 오로지 여성적인 매력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마물이라는 이유로 주위로부터 배척당하고 도요오에게 조차 외면당하자 드디어 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마나고는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랬을 것이다. 비현실적 존재, 즉 마물로서 나타나는 마나고는 더 이상 한 여인으로서 한 남자의 사랑을 구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속의 불행한 존재로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마는 마나고는 이제는 집착과 애욕으로 점철된 마물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다. 인간의 집착과 애욕의 모습을 마나고를 통하여 드러내어 자신의 의지 속에 함몰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빗대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 작품은 마물인 마나고의 애욕에 대한 집착의 모습을 통해 여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본성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

고 있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모습을 투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³⁰⁾

이와 같이 아키나리는 인간의 이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들을 가능한 한 극한 상황에 두고 그 인물들을 인간이 아닌 기이한 존재로서 표현하고 있다. 즉 섬뜩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가득한 본 작품은 마나고의 도요오를 향한 사랑과 집착을 지극히 부정적인 양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당시의 사회상으로는 이렇게 애정에 집요한 태도를 보이는 여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나고는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마나고는 인간이 아닌 사신(邪神)으로서 존재하는 마물인 것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사회의 규범 따위는 깨끗하게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모습을 인간이 아닌 마물의 모습에 투영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적인 제약과 구속에 간하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봉건사회는 일탈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여지없는 제약을 가하는 법률적으로 엄격한 사회였다. 결국 누가나가 한번씩 꿈꿔보는 행동적 자유의 동경은 생각만큼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품구성은 작자 아키나리가 본 작품에서 『우게쓰모노가타리』의 다른 여러 작품에 두 배 가까운 분량을 할애할 정도로, 다른 작품과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려고 공들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3. 남녀관계의 확대와 변화

앞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비쓰노가마」는 쇼타로와 이소라라는 부부와 쇼타로의 정부인 소테의 삼각관계로 되어 있고, 「자세이노인」은 도요오와 뱀이 변한 마나고를 중심으로 한 인간과 마물 간의 이야기이다. 즉 두 작품이 모두 남녀의 애정관계를 그리고 있지만 불륜, 미물간의 관계 등으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확대되어 가고 있다.

결국 「기비쓰노가마」는 쇼타로의 불륜을 아내 이소라가 복수하는 것이고, 「자세이노인」은 이루어 질 수 없는 마물의 인간에 대한 욕망과 집착의 결과를 그린 것이다.

작자 아키나리는 남성적인 선이 굵은 작자로서 『우게쓰모노가타리』에서 대부분의 단편에 걸쳐서 강렬한 성격의 남성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생전의 모습은 남성들의 모습만큼 생생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녀들이 보다 생생하게 묘사되는 것은 사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계의 인물, 원령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녀들의 입지는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즉 남성적 활력을 지닌 원령

이 되어 남성들과 상대하게 되는 것이다.

생전의 여성들의 모습은 죽은 후 원령이 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고, 고통받고 피로움을 안고서 살아가는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원령이 된 후부터의 여성들의 모습은 충분히 두려운 존재로써 묘사되어, 생전의 여성들의 고뇌까지 배가하여 느끼도록 하게 한다. 이러한 효과를 작자가 계산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의문스럽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생전의 모습의 간략화는 본 작품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³¹⁾고 하는 고토(後藤)의 평가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두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남녀인물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비쓰노가마』는 쇼타로와 이소라라는 부부에 소데라는 정부가 개입하는 구도로 사건이 전개되어 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쇼타로와 이소라의 혼담이 있을 후 신관인 이소라의 아버지는 가마점을 쳐보지만 불행한 신의 계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소라는 이러한 신의 계시를 어기고 상대인 쇼타로와 혼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비참한 말로로 끝을 맺게 된다.

이소라는 남편이 정부인 소데와 정을 통하며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을 성심으로 돌보고 정부인 소데까지도 그 편의를 보이주는 상냥하고 배려가 있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생전의 이소라의 모습은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고 한 봉건시대의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한층 심해진 쇼타로의 부정적인 행위와 더불어 변화하게 된다. 이소라를 이용하고 기만한 쇼타로로 인하여 더 이상 이소라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즉 변화된 모습으로 『기비쓰노가마』의 이소라는 묘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이소라는 병을 얻게 되어 죽은 후, 원령이 되어 나타나 생전의 모습을 감추고 복수에 집착하는 여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제 이소라는 피해만을 감수하는 피해자의 모습에서 직접 자신의 의지를 보이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복수의 일념으로 가득 찬 가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소라의 원령은 쇼타로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쇼타로는 이러한 이소라의 복수를 피하려고 부적을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취해보지만 가마점에 의하여 운명지어진 불행한 결말과 사후 변화한 이소라의 원령을 막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본 작품에서 이소라는 피해를 입은 여성의 모습으로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

으로 쇼타로에게 복수를 가하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자세이노인』에서는 남녀간의 관계가 인간대 인간으로부터 인간과 마물 간의 관계로 변화함을 찾아 볼 수가 있었다. 즉 인간 도요오와 뱀이 변한 마물인 마나고를 중심으로 사건은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마나고라는 마물의 여성은 처음부터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상정되어 있었다. 작품의 내용에서 굳이 찾지 않더라도 『자세이노인』이라는 본 작품의 제목을 통하여서 그 존재의 특이성을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나고는 『기비쓰노가마』(吉備津の釜)에 등장하는 이소라와는 달리 처음부터 적극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는 여성이다. 즉 마나고에게서는 전통적인 봉건여인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고, 적극적이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로서 등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설정은 이소라가 처음에 겪었던 피해자적 의식을 일시에 해소시키는 적극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아닌 마물의 여성을 등장시킴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나고의 욕망과 집착은 준수한 외모와 학식을 겸비한 도요오에게 점철된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마나고의 모습은 점점 부정적인 양상으로 변화해 간다. 마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던 도요오는 부정적인 존재인 마나고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소라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남편에 대한 복수를 이룰 수가 있었다. 그리고 『자세이노인』에서 나타나는 마나고의 부정적인 양상으로의 변화는 도요오의 인간적 성숙과 더불어 해소되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남녀조형의 변화양상을 피해자와 가해자로서의 이소라,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마나고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하여 두 작품에 나타난 여성들의 단계적 변화양상을 행위주체에 따라서 알 수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하여 남녀조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Ⅲ. 결 론

고전작품의 경우 대부분 작품의 주제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작품 속에 암시적인 복선을 나타내거나 복잡한 구성으로써 사건전개를 이끌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의 주제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재해석해보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기비쓰노가마』와 『자세이노인』에서 나타내려고 하였던 남녀조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기비쓰노가마』에서는 우유부단하고 바람기있는 쇼타로에 대한 정숙한 이소라의 믿음 이 쇼타로의 배반으로 인하여 무너져 가는 과정과 이에 대한 이소라의 처절한 복수를 묘사하고 있다. 가마점을 통한 신의 계시를 무시하고 연결되는 두 인물의 정해진 파국을 통하여 신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정숙한 인물 이소라가 사후 두려운 존재로서 변화해 가는 전기적 인물묘사를 통하여 이소라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세이노인』에서는 도요오와 인간이 아닌 마물로서 등장하는 마나고를 중심으로 마나고의 도요오에 대한 애욕과 집착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인간이 아닌 마물인 마나고가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리고 신관에게서 학문을 배워 신도적 인물로 등장하는 도요오를 통하여서는 소극적 인간에서 신도를 통한 자각에 의하여 적극적 성격으로 변모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남녀주인공들은 외적, 내적 갈등을 느끼는 존재들이고 또한 그러한 갈등 속에서 인간적인 나약함과 강인함을 함께 보여 주는 존재들이었다. 또한 이들 남녀조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작품에 나타나는 전기적 묘사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흥미만을 유발시키는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등장하는 남녀인물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다 강렬하게 나타내기 위한 효과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키나리는 현실의 존재인 인간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현실만을 무대로 하여 인간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전기적 요소들을 등장시켜서 묘사하고 있다. 즉 두 작품 속의 남녀조형묘사는 비현실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단지 인간이 아닌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현실의 인간들이 모습을 바꾼 것으로서 인간의 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키나리는 인간의 이면을 보여주기 위해

서 남녀관계를 가능한 한 극한 상황에 두고 두 남녀가 상황에 따라 변화해 가는 양상 속에서 이계의 존재로서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전기성은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의 이면이 노출된 것으로서, 인간의 신념 혹은 운명에 대한 깊은 사색과 의지가 뒷받침되어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현실세계의 인간의 삶은 불완전하다.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는 인간의 본성까지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현실 세계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현실 또는 전기성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었다.³²⁾ 이와 같이 『기비쓰노가마』와 『자세이노인』의 두 작품에서는 전기적 세계를 상징함으로써 남녀조형의 특징과 그를 통한 인간조형의 특징 등이 표현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일본 괴이소설 최고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우게쓰모노가타리』 속에서의 『기비쓰노가마』와 『자세이노인』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었다.

【注】

- 1)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는 전부 『시라미네』(白峯), 『깃카노치기리』(菊花の約), 『아사지가야도』(淺茅が宿), 『무오노리교』(夢應の鯉魚), 『붓포소』(仏法僧), 『기비쓰노가마』(吉備津の釜), 『자세이노인』(蛇性の淫), 『아오즈킨』(靑頭巾), 『헨푸쿠론』(貧福論)의 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森田喜郎 『上田秋成の研究』(笠間叢書, 1979), pp.179~214.
- 3) 森田喜郎 『上田秋成小説の研究』(和泉選書, 1991), pp.25~58.
- 4) 鶴月洋 『雨月物語評釋』(角川書店, 1969), p.452.
- 5) 一子正太郎なるもの農業をいとふあまりに酒に亂れ色にふけりて父が掟を守らず。p.397. 본고의 텍스트로는 『英草紙 西山物語 雨月物語 春雨物語』(中村幸彦, 高田衛, 中村博保 校注釋) 『日本古典文學全集 48』(小學館, 1973)를 사용하였다.
- 6) されどおのがままのたわけたる性はいかにせん。いつのころよりのもの津の袖といふ妓女にふかくなじみて遂にあがないいだしちかき里に別莊をしつらいかしこに日をかさねて家にかへらず。p.399.
- 7) 吉備津の神主香央造酒が女子はうまれだち秀麗にて父母にもよく仕へかつ歌をよみ琴に工みなり。p.397.
- 8) かくまでたばかられしがば今はひたすらにうらみ嘆きて遂に重き病に臥にけり。p.401.
- 9) 「めずらしくもあひ見奉るものかな。つらき報ひの程しらせまいらせん。」p.406.
- 10) 「既にするしを納めしうえかの赤繩に繋ぎては仇ある家異なる域なりとも易べからずと聞くものを。(中略) 今のよからぬ言を聞くものならば不慮なる事をや仕出さん。其のとき悔るともかへらじ。」pp.398~399.
- 11) 森田喜郎 『上田秋成の研究』(笠間叢書, 1979), pp.111~122.

- 12) ともし火をかかけてここかしこを見めぐるに明けたる戸腋の壁になまましき血灌ぎ流て地につたふ。されど屍も骨も見えず。月あかりに見れば軒の端にもあり。ともし火を捧げて照らし見るに男の髪の毛ばかりかかちて外には露ばかりのものもなし。淺ましくもおそろしきは筆につくすべうもあらずなん。p.409.
- 13) そもそも當社にいのりする人は數のはらへつものを供へて御湯を奉り吉祥凶祥を占ふ。巫子祝詞をはり湯の沸き上がるにおよびて吉祥には釜の鳴聲牛のほゆるが如し。凶きは釜に音なし。是を吉備津の御釜ばらいといふ。さらに香央が家の事は神のうけさせ給はぬにや只秋の蟲のくさむらにすだくばかりの聲もなし。ここに疑ひをおこして此の祥を妻にかたらふ。p.398.
- 14) 「災すでにせまりて易からずききに女の命をうばい恨み猶盡ず。足下の命もあきゆうにせまる。此の鬼世をさりぬるは七日前なれば今日より四十二日が間、戸を閉ておもき物いみすべし。我がいましめを守らば九死を出でて全からんか。一時を過るともまぬがるべからず。」p.407.
- 15) 鵜月洋『雨月物語評釋』(角川書店, 1969), p.559.
- 16) 三郎の豊雄なるものあり。生長優しく常に都風たる事をのみ好みて過活心なかりけり。p.41.
- 17) おのが世ならぬ身をかえりみれば親兄弟のゆるしなき事とかつうれしみかつ恐れみて頓に答ふべき詞なきを。p.418.
- 18) 豊雄すこし心を収めて「かく驗なる法師だも祈り得ず。執ねく我をまとうものから天地のあいだにあらんかぎりを探し得られなん。おのが命ひとつに人々をくるしむるは實ならず今は人をもかたらはじ。やすくおぼせ。」p.438.
- 19) 此の豊雄 新宮の神奴安部の弓鷹を師として行き通ひける。p.412.
- 20) 鵜月洋『雨月物語評釋』(角川書店, 1969), pp.564~566.
- 21) 人々いよよ恐れ惑ひつつ翁を崇まへて遠津神にこそと拜みあへり。翁打ち笑ておのれは神にもあらず。大倭の神社に仕へまつる當麻の酒人といふ翁なり。p.432.
- 22) 森田喜郎『上田秋成の研究』(笠間叢書, 1979), pp.131~144.
- 23) 「今は人をもかたらはじ。やすくおぼせ。」p.438.
- 24) いとけさうじていふぞうたてかりき。豊雄いふは(中略)「此の富子が命ひとつたすけよかし。然我をいつくにも連ゆけ。」pp.438~439.
- 25) 畜爾が秀麗にたはけて爾を纏ふ。爾又畜が假の化に魅はされて丈夫心なし。p.433.
- 26) 年ははちちにたらぬ女の顔容髪のかかりいと艶ひやかに(中略)豊雄を見て面さと打ち赤めて恥かしげなる形の貴やかなるに不慮に心動きて。pp.412~413.
- 27) 「さればこそ此の邪神は年經たる蛇なり。かれが性は姪なる物にて牛とつるみは隣を生み馬とあひては龍馬を生といへり。此のまどはせつるもはたその秀麗にたはけたると見えたり。かくまで執ねきをよく恨み給はずばおそらくは命を失ひ給ふべし。」p.432.
- 28) 「他し人のいふことをまことしくおぼしてあながちに遠ざけ給はんには恨み報ひなん。紀路の山々さばかり高くとも君が血をもて峰より谷に灌ぎくださいん。あたら御身をいたづらになし果給ひそ。」p.435.
- 29) 君何の誓に我をとらへんとて人をかたらひ給ふ。此後も仇をもて報ひ給はば君が御身のみにあらじ此郷の人々をもすべて苦しきめ見せなん。p.440.
- 30) 鵜月洋『雨月物語評釋』(角川書店, 1969), pp.567~568.
- 31) 後藤明生『雨月物語・春雨物語』(『現代語譯 日本の古典19』, 學習研究社, 1991), pp.166~167.
- 32) 植田一夫『雨月物語の研究』(櫻楓社, 1988), p.198.

【參考文獻】

- 中村幸彦 外 校注『英草紙 西山物語 雨月物語 春雨物語』, 日本古典文學全集48, 小學館, 1973.
- 森田喜郎『上田秋成の研究』, 笠間叢書, 1979.
- 森田喜郎『上田秋成小説の研究』, 和泉選書, 1991.
- 鷗月洋『雨月物語評釋』, 角川書店, 1969.
- 植田一夫『雨月物語の研究』, 櫻楓社, 1988.
- 高田衛『上田秋成研究序説』, 寧樂書房, 1968.
- 中村博保『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秋成』, 有精堂, 1975.
- 中村幸彦『秋成』, 笠間書店, 1976.
- 後藤明生『雨月物語・春雨物語』, 學習研究社, 1991.

『雨月物語』に見られる男女關係 — 「吉備津の釜」と「蛇性の淫」を中心として—

朴 熙 永

本稿では、『雨月物語』所収の短編のうち、人間關係、特に男女關係をもっともよく描いていると評価され、また同様の構成と登場人物構造を持つと思われる二つの短篇「吉備津の釜」と「蛇性の淫」を中心に、その男女造型の分析と変化様相を考察してみた。

「吉備津の釜」では、淑やかな磯良が浮気性のある正太郎に対して遂げる夏鬢を描いている。お釜ばらいで伝えられた神の印を無視して結ばれる二人の定められた破局を通じて、神道の意味が考えられ、磯良が死後恐ろしい存在に変化していく伝奇的な人物描写を通じて、磯良の怒りを効果的に表わしている。

また「蛇性の淫」では、人間ではない魔物として登場する真女兒の、人間・豊雄に対する愛欲と執着が描かれている。神官から学問を学んで神道的な人物として成長していく豊雄を通じて、消極的な人間から積極的な人間へと変貌する一人の人間を見ることができ。

このように二つの短篇に登場する男女の主人公たちは、外的または内的な葛藤を持つ存在であり、人間的な弱さと強さをあわせ持つ存在だった。また、二つの短篇にみられる伝奇的な描写は、男女關係をより効果的に表現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

秋成は、現実的存在である人間と、非現実的存在である伝奇的なものをともに登場させている。すなわち、二つの短篇における男女關係の描写は非現実性を持っていると言えよう。

つまり、「吉備津の釜」と「蛇性の淫」の二つの短篇では、伝奇的な世界を通じて、男女造型の特徴、ひいては人間造型の特徴などを効果的に示すことができた。日本の伝奇小説の中で最高傑作といわれる『雨月物語』における「吉備津の釜」と「蛇性の淫」の意義は、このように求められるだろう。